

신수사학에서의 보편청중과 논증의 문제

양현정, 박치완

주제분류 수사학, 논리학, 과학철학

주요어 신수사학, 보편청중, 논증, 논리적 삼단논법, 문답술적 추론

요약문

카임 페렐만은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의 수사학연구가들에게서 전적으로 평가절하된 문답술적 추론에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여 신수사학(The New Rhetoric)이라는 새로운 학풍을 만들어내었다. 종전에 연구가들이 수사학을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적 추론, 즉 형식적 추론에 제한시켜 논의했다면 페렐만은 문답술적 추론에 비중을 두어 수사학을 ‘보편청중’ 중심으로 그 방향을 전환시킨 것이다.

문답술적 추론에 있어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보편청중을 ‘설득’시키는데 있다.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을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페렐만은 보편청중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 자신의 수사학적 논의를 과학적 인식의 보편성 문제에까지 확대시켰다. 뿐만 아니라 보편청중 개념에 기초하여 페렐만은 사회의 현실 속에서 담론의 소재를 적극 개발하고, 그것을 직접 논증화하는데 적극적이였다. 그가 법률, 문학, 철학, 정치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자신의 이상과 같은 아이디어를 시험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는 본고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첫째, 신수사학은 개인과 사회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 공존해야 하는지를 핵심적 화두로 삼는다. 때문에 각 개인에게 있어 고유한 경험들의 최대공약수를 이성적으로 도출하는 일이 신수학에 있어서 중요한 관건이 된다. 둘째, 신수사학적 논증은 기본적으로 실천의 영역과 이론의 영역의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절름발이식 분과 학문들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어떤 것인지 제시해줄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신수사학이 현대 철학의 새로운 방법론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며, 본고에서 보편청중과 논증의 문제를 다루어보았다.

1. 들어가며: 왜 논증이 중요한가?

대략 2년 전의 일로 기억된다. 황우석 교수의 사건을 접하면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씁쓸한 감정을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을 동시에 느꼈다. 씁쓸한 감정은 그가 연구 중인 배아줄기 세포를 마치 연구 결과로 획득된 것 인양 '지적 사기'를 쳤기 때문이요, 안타까운 마음은 그가 연구한 분야가 다름 아닌 객관성을 요체로 하는 자연과학이고, 더더욱 최첨단 분야였기 때문이다. 어쩌면 대부분의 인문과학도들은 비록 그가 지적 사기를 쳤다는 오명은 뒤집어쓰기는 했지만, 그렇게 사기라도 칠 수 있었던 황 교수에게 부여된 외적 환경과 공적 지원이 부럽기까지 했을 것이다. 전 세계 과학계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던 황 교수 사건은 막을 내렸지만, 그는 어쨌건 가장 '앞서가는 담론'의 현장에 있었던 주인 공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추론을 해볼 수 있다. 자연과학이든지 아니면 인문 과학이든지 가장 앞서가는 담론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그것이다. 담론의 성립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학문의 세계에서는 마치 통과외레처럼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가장 앞서가는 담론의 장에서 놀아야 지적 사기라도 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이런 논리에 따르면 철학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담론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전공과 관련해 자연스럽게 생긴다. 우리는 이 질문에 단연코 답할 수 있다. 그것은 '수사학(rhétorique)'이라고.

현대 사회의 특징을 대중사회의 형성, 의사소통의 중요성, 이데올로기적 권위의 실추¹⁾ 그리고 소비사회의 등장²⁾ 등으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

1) 박성창, 『수사학』, 문학과 지성사, 2005, 177~179쪽. 박성창은 대중사회의 형성, 의사소통의 중요성 그리고 이데올로기적 권위의 실추와 같이 세 가지로 수사학이 현대 사회에서 각광을 받는 이유를 기술하고 있다. 여기에 우리는 현대가 '소비의 사회'라는 점을 추가하고자 한다. 소비사회 풍조는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가 글로벌화를 지향하면서 그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대부분의 사람이 동의할 것으로 믿는다. 이러한 현대 사회의 특징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이라는 책을 집필 당시의 상황과 상당 부분 유사한 점이 있다. 그리고 그의 수사학이 카임 페럴만(Cham Perelman)에 의해, 특히 ‘논증’의 문제를 중심으로 부활하여 신수사학이 탄생하게 된 배경과도 무관하지 않다.

물론 우리가 본고에서 신수사학을 논증 분야에만 국한시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사실 오늘날 수사학은 문학적 수사학, 기호학적 · 언어학적 수사학, 윤리적 · 교육적 수사학, 실천철학으로서의 수사학, 포스트모더니즘 계열의 수사학, 과학의 수사학, 오류의 수사학 등 가히 수사학의 전성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거의 전 학문 분야에 폭넓게 퍼져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 수사학은 문체론, 가치론, 인식론, 논리학, 그리고 존재론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마치 ‘총합학문’처럼 그 임무를 수행 중에 있다.³⁾ 다시 말해 현대 사회의 특징을 규명하기 위한 하나의 새로운 방법 또는 사유 도구로써 수사학은 다양한 영역과 장르에서 그 위상을 굳혀가고 있다. 이로 미루어 수사학이 철학계, 나아가 인문과학계 전반에서 갖는 위상을 황교수의 사건이 자연과학계를 뒤흔들었던 일과 비길만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수사학은 역사적으로 혹은 기능적 측면에서 크게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논증 중심의 수사학이고, 다른 하나는 문체 중심의 그것이다. 이 두 가지 중에 본고에서 우리는 주로 논증 중심의 수사학에 대해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본고에서 우리가 논증 중심의 수사학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첫째로, 문체 중심의 수사학은 문학 분야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 이유는 우리가 갖고 있는 수

것이기 때문이다.

2) 장 보드리야르, 『소비의 사회: 그 신화와 구조』, 이상률 옮김, 문예출판사, 2002 참조.

3) 보다 자세한 언급은 박치완, 「데카르트와 수사학」, 『해석학 연구』 제20집, 2007, 143~144쪽 참조. 박치완은 이 논문에서 신수사학을 “논증과 설득 그리고 실천적 앎으로서의 총합학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학이라는 용어가 대개는 미사여구법 혹은 장식적 기능 등과 같이 다소 부정적 의미로 왜곡되어 수사학에서의 논증의 문제가 사장(死藏)되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논증이 아닌 문체가 중심이 되는 기현상으로 인해 결국 사람들이 수사학을 “말 잘하고, 글 잘 쓰는” 기능 정도로 오해하는 직접적 원인도 여기에 기인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와 같은 기현상은 바로 잡을 필요가 있고, 따라서 우리가 본고에서 문체 중심의 수사학이 아닌 논증 중심의 수사학을 다루려는 것이다.

이렇게 논증 중심의 수사학을 전개하기 위해 우선 제1장에서는 신수사학의 출현 배경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 있어 왜 오늘날 신수사학적 논증이 필급(必急)한 것인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까 한다. 다음으로 제2장에서는 페럴만의 신수사학을 변별적으로 이해하는데 있어 핵심적이라고 생각되는 ‘문답술적 추론(raisonnement dialectique)’⁴⁾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그리하여 플라톤의 이데아론,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 데카르트의 코기토 그리고 이것들 각각에 대한 카임 페럴만의 해석을 따라가면서 문답술적 추론의 위상을 재고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제3장에서는 페럴만이 주장하는 ‘보편청중(universal audience)’을 칼 포퍼의 반증이론과 비교하는 지면을 할애할 생각이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신수사학에 대한 논의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페럴만의 신수사학적 방법이 과학의 영역에서까지도 적극 응용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반증되고도 남음이 있다.⁵⁾ ‘물질’이 중심이면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것을 추구한다고 알고 있는 과학의 세계와 ‘인간’이 중심이면서 주관적이고, 그리하여 개연적 지식을 추구한다고 간주되는 수사학의 세계가 현대에 이르러 필요에 의해 통합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고나 할까.⁶⁾

4) 여기서 <dialectique>를 우리는 ‘문답술’이라고 번역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변증술’ 또는 ‘대화술’ [참고로 장혜영은 『논증의 역사』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 30쪽)에서 <dialectique>를 ‘대화술’이라고 옮기고 있다] 은 <묻는 자와 답하는 자의 관계>를 충분히 부각시키지 못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5) 앨런 그로스, 『과학의 수사학』, 오철우 옮김, 궁리, 2007 참조.

이렇게 신수사학의 연구 범위가 과학의 영역에까지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현실을 놓고 볼 때 페럴만이 주장한 신수사학에서의 보편청중과 논증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그 나름의 의의가 충분히 있다고 자임하고, 본고의 출발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닛을 올린 것이다.

2. 페럴만의 신수사학에서 문답술적 추론과 보편청중의 문제

1) 신수사학의 출현과 다원론적 사상의 요청

페럴만이 신수사학을 통한 새로운 논증 기술을 현대에 와서 지금 논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새로운 상황, 즉 하나는 다원주의의 등장이고, 다른 하나는 과학 기술에 의한 자유의 위협 상황, 이 두 가지 상황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⁷⁾ 그런데 문제는 전통 철학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너무나 부족하고⁸⁾, 더욱이 큰 문제는 비이성적 합리성을 근간으로 하는 새로운 포스트모더니즘의 물결이 서구사회에서 지금 활개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을 일찍이 법, 철학 그리고 역사적인 측면에서 고찰한 페럴만은 자신의 스승인 유진 뒤프레엘(Eugène Duprèel)의 사상을 계승하여 전통적으로 절대적인 지(知)만을 고수했던 사상 편력, 즉 대표적으로 플라톤, 데카르트 그리고 칸트 등의 철학에 대해 비판하면서 다원론적 사상의 필요성을 요청하기에 이른다.⁹⁾

6) 주지하듯, 신수사학은 페럴만을 중심으로 하는 유럽권과는 다르게 영미권에서는 스테펜 톨민, 찰스 햄블린 등을 중심으로 비합리성, 즉 ‘오류(fallacy)’를 위주로 연구되고 있으며, 이들은 특히 논증 방식을 유형별로 구체화시키고 있다. 그런가 하면 유럽권과 영미권의 연구를 병행적으로 탐구하는 그룹도 있다. 보다 상세한 설명은 필립 브르통&질 고티에, 『논증의 역사』, 장혜영 옮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 참조.

7) Mieczyslaw Maneli, “The New Rhetoric and Dialectics”, *Revue Internationale de Philosophie*, n° 127~128, 1979, 222쪽에서 재인용.

8) Michel Meyer, “The Revival of Questioning in the Twentieth Century”, *Synthèse*, vol. 74 n° 1, 1988 참조.

그가 요청한 다원론적 사상은 일원론(monisme), 독단론(dogmatisme) 또는 전제주의(totalitarisme)와 대비되어 설명될 수밖에 없다.¹⁰⁾ 다원론적 사상이란 다원론적 사상이란 가치론, 사회학, 정치학 그리고 과학 등의 분야를 망라하는 통합적 사상의 일종으로 무엇보다도 분과 학문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의 다원주의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그동안 학문은 분화되고, 그 분화된 학문들은 전혀 현실의 다원주의적 상황을 고려하지 못했다. 특히 다양성과 다원성을 생명으로 하는 현실을 무시하고 오직 이상적 학문 세계만을 추구하는 자기모순을 범했다. 그 결과 현실감은 떨어지고 오직 이상적인 형식에만 매달리는 결점을 노정 한 것이다.

페렐만이 다양성과 다원성을 생명으로 하는 현실에 천착하여 그의 수사학을 출범시킨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이는 M. 마넬리가 적절히 지적하고 있듯, “모든 형식적인 사상 혹은 이론은 불완전하다(imparfait)”¹¹⁾는 것을 전제로 한다. 부연컨대 페렐만의 이와 같은 주장 속에는 모든 체계, 모든 질서, 모든 사유는 현실과의 끝없는 대화 속에서 진보할 수 있다는 생각을 그 바탕에 깔고 있다. 즉 만약 플라톤의 이데아처럼 그것이 완벽하고, 유일하며, 나아가 전능하기까지 하다면, 더 이상 학문·이론적 진보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사회·현실 그 자체를 불완전한 상태, 돌려 말해 역동적인 다원 상태로 설정하게 되면, 우리는 각각의 분야에서의 연구를 대등하게 존중하게 되고, 나아가 상호 대화를 통한 타협을 모색할 수 있게 된다. 좀 과장해서 말하자면, 우리는 많은 순간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결국 페렐만의 주장인즉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이고 그 방법,

9) Cha m Perelman, *L'empire rh torique - rh torique et argumentation*, J. Vrin, 1988, 19~20쪽 ckawh.

10) 미에치슬라브 마넬리, 『페렐만의 신수사학』, 손장권/김상희 옮김,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6 참조. 페렐만이 비판한 일원론, 독단론 혹은 전제주의 사상 내에는 유일신 사상을 근간으로 하는 모든 종교도 포함되어 있다.

11) M. Maneli, *op. cit.*, 222쪽.

즉 수사학적 논증과 설득을 습득해야 모든 독단적인 사상 혹은 전제적인 사유에서와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페럴만을 통해 새롭게 인식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러한 의사소통과 대화의 창조적 역할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현실에 천착한 페럴만의 사상을 부각시켜보았는데, 사실 이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절대주의적 사상들에 의한 인간의 자유 위협에 있다. 얼마나 인간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는지 썰리 반 누든의 논문을 보자.

형이상학적이고 논리적 의미 내에서 이론이 갖는 의미는 윤리학과 정치학의 영역에서는 그것이 정신적인 훈련을 위한다는 목적 하에서만 참다운 사실-가치를 지닌다. 즉 이론이 실행되지 않는 한(마치 몸을 만드는 육체적 활동이 진행되지 않는 것과 똑같이), 다시 말해 그 자체만을 이론화한다면, 어떠한 위험도 있어 보이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비록 그것이 사회적으로는 비생산적인 측면이 있더라도, 윤리학이나 정치학 입장에서는 무해하고, 또는 중요하지 않는 활동, 다시 말해 ‘사물의 본성’에 대한 형이상학적 정신 활동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현상을 방관하고만 있을 수는 없게 되었다.¹²⁾

전통의 형이상학적이고 논리적 의미 내에서 이론은 인간의 자유를 간접적으로 위협했다. 그러나 오늘날은 상황이 다르다. ‘과학’이 현대의 모든 가치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척도로 기능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말해 유독 기술적·양적 측정만을 기준으로 삼기 시작하면서 현대의 독단론은 전통의 그것보다 더욱 기세를 부리고 있으며, 심하게는 인간을 한낱 부품으로 취급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페럴만이 현대에 팽배해 있는 과학적 증명을 문제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가 볼 때 이 과학적 증명이라는 것도 한낱 과학과 기술의 침범으로 기능할 뿐 결코 현실의 구원자가 될 수는

12) Sally Van Noorden, “Rhetorical Arguments in Aristotle and Perelman”, *Revue internationale de Philosophie*, n° 127~128, 1979, 275쪽.

없다. ‘현실’과 ‘실천’의 측면이 일방적으로 공격받고 다양성은 늘 무시된 채 전체성과 균일성만이 성창(盛昌)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간의 자유가 온전할 수 없다. 과학과 기술의 역능은 역설적이게도 제레미 벤담이 설계한 거대한 감옥인 ‘파놉티콘’에서 처럼 인간의 삶의 현장을 감시와 처벌의 구조망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푸코가 지적하듯이 과학과 기술을 바탕으로 형성된 규율권력은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에서 각종 감시 통제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다. 요컨대 정보사회는 정보감옥이 되고, 이 감옥 속에 있는 인간은 잠자고 있건 깨어 있건, 일하고 있건 쉬고 있건, 욕실에 있건 침대에 있건 자유를 박탈당한 채 감시를 당하고 있다.¹³⁾

이처럼 거대한 파놉티콘을 만들어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현실, 이것이 바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자화상이라면 지나친 과장일까. 이렇게 일그러진, 억압·감시받고 있는 상태에서부터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페럴만의 신수사학은 바로 이러한 파놉티콘적 사회의 중심에서 태동한 것이다.¹⁴⁾ 페렐만의 신수사학을 이해하는데 있어 관건이라고 생각되는 ‘문답술적 추론’에 대해 추적하면서 그의 다원론에 대한 지향이 얼마나 많은 장벽들과 부딪쳐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2) 신수사학에서의 문답술적 추론과 전통의 사유 체계(논리)에 대한 재고

『담론분석사전 *Dictionnaire d'analyse du discours*』에서 철학적 문답술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3) 홍성욱, 『파놉티콘-정보사회 정보감옥』, 책세상, 2007, 27쪽. 홍성욱은 이런 일상적인 생활의 철저한 감시 상황을 조지 오웰의 『1984』에서 다루는 이미지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상황을 영상적으로 이해하는데 영화 《트루만 쇼》를 관람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14) André Robinet, “Nouvelle rhétorique et informatique : le pouvoir dialectique”, *Revue internationale de Philosophie*, n° 127-128, 1979 참조.

철학에서 문답술은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일종의 상호반응으로써 규정되는데, 그것은 규칙들에 종속되면서, 동시에 주어진 주장을 방어해야만 하는 답변자와 그것을 공격해야만 하는 질문자, 이 두 상대적 존재를 대비하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 문답술은 승자와 패자가 존재하는 경계선상에 있는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답술은 그 도구로써 ‘문답술적 삼단논법(syllogisme dialectique)’이 이용되는데, 그것은 ‘논리적 삼단논법’처럼 절대적으로 참인 전제를 근거로 하여 형성된 것을 지칭하지 않고, 통념(endoxa)처럼 간략하게 ‘수용된 관념’을 근거로 성립됨을 의미한다. 이처럼 아리스토텔레스는 통념을 근거로 철학적 도구로써 문답술적 삼단논법을 설정하고 있다.¹⁵⁾

이렇듯 ‘문답술’은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철학적으로 자리매김된다. 그에 따르면 문답술은 묻는 사람과 대답하는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이며, 그 도구로써 ‘논리적 삼단논법’에서와는 달리 통념에 근간한 ‘문답술적 삼단논법’이 사용된다. 여기서 우리는 결국 문답술에 있어 중요한 것은 묻는 사람과 대답하는 사람 사이에 ‘수용된 관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용된 관념은 “절대적 참인 전제”를 기반으로 추구하는 ‘진리’와는 다른 차원의 ‘상식’에 뿌리를 두고 있다. 상식은 절대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만들어 가는 진리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떤 이유로 진리보다는 통념을 두둔하게 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그의 플라톤 철학에 대한 해석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자기화한 개념들의 대부분이 그의 스승인 플라톤에서 비판적으로 차용된 것이기 때문이다.¹⁶⁾ 이데아론에 관한 것도 그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주지하듯 플라톤의 철학은 동굴의 우화와 상기설로 대변되며, 거기에서 비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¹⁷⁾ 플라톤은 절대가치인 ‘이데아’

15) P. Charaudeau & D. Maingueneau(éd), *Dictionnaire d'analyse du discours*, Seuil. 2002, 173쪽.

16) 한석환,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의 철학적 기초」, 『철학』 제74집, 2003, 48쪽.

17) David Ross, *Plato's Theory of Ideas*, Oxford, 1953 참조.

를 설명하기 위해 통념의 세계, 즉 감각적이고 다변적인 경험의 세계인 가지계(monde visible)를 그 이데아의 하위에 설정해 놓고 있다.¹⁸⁾ 그에 따르면 가지계에서 동굴 속에서의 마찬가지로 참다운 진리를 알 수 없다. 참다운 진리(이데아)를 알기 위해서는 동굴의 세계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그리고 그 때 동굴 속에서 보았던 그 모든 것들이 거짓되고 가짜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 플라톤의 이러한 동굴의 비유는 우리에게 참다운 진리는 반드시 앞으로써 존재하고, 이의 인식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났는데 다만 망각의 강인 ‘레테의 강’을 건너면서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상기설로도 보완되고 있다.

이와 같이 동굴의 우화와 상기설로 대표되는 플라톤의 진리관은 가장 최상의 존재로서 ‘이데아’를 정점에 올려놓고, 그 아래로 ‘정도(degré)’의 차이에 의해서 존재(자)의 순위가 결정된다. 플라톤의 진리관은 이렇듯 그 정점에 이데아가 있고, 이를 기점으로 수직적인 위계가 형성된다.¹⁹⁾ 이로 인해 플라톤의 철학에서는 통념의 세계에서 중요한 반박(réfutation), 논쟁(controverse)과 같은 개념이 설 자리가 없다. 왜냐하면 이미 완벽한(parfait) ‘이데아’가 위계관계의 정점에 설정되어 있고, 그것이 절대적인 반박, 논쟁 등은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²⁰⁾ 다시 말해 근본적으로 플라톤이 추구한 세계, 즉 가지계(monde intelligible)는 대중을 상대로 하는 ‘통념의 세계’와 거리가 있다. 때문에 수사학에서 중시한 상대적 요소, 모순적 요소, 또는 ‘인간적’ 요소가 개입할 공간이 없다. 오로지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로 분리된 플라톤의 세계는 단일하고 동일한 하나의 체계 속에서 이미 참인 절대적인 것을 설정해 놓고, 그 반대편의 것은 모두 거짓으로 배제된다.

18) 플라톤, 『플라톤의 국가(政體)』, 박중현 옮김, 서광사, 1997, 448-503쪽.

19) D. Ross, *op. cit.* 참조.

20) M. Maneli, *op. cit.*, 222-223쪽. 여기서 마넬리는 페럴만의 다원론을 설명하면서 절대론의 단점을 비판하고 있다. 그는 절대론의 단점 중의 하나가 바로 ‘완전성’이라는 이데올로기에 있음을 지적하고, 인간, 사회 그리고 사물의 ‘본성’을 ‘불완전성’에서 구한다고 역설한다. 그리고 이러한 불완전성은 헤라클레이토스가 비유적으로 사용한 모순적 개념인 ‘불’, 즉 발전과 부정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페렐만에 따르면 이렇게 플라톤은 거짓인 것들을 모두 배제하고 반쪽만의 참을 기술하는데 그쳤다.²¹⁾ 페렐만에게 있어 플라톤의 이데아론적 가치 세계가 늘 비판적·부정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²²⁾ 그리고 그의 신수사학의 정초를 위해 플라톤보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후한 점수를 주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그의 수신사학을 위해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한 대중의 ‘의견’, 즉 통념의 세계에서 사용되는 반박, 논쟁 등이 페렐만에게는 “진리라는 ‘이념’”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값진 것이다.

문답술과 관련해 아리스토텔레스의 직접적 언급을 『수사학』에서 간추려 보자: “수사학은 문답술과 상대항(analogue)”을 이룬다(1354a 1); “수사학은 문답술과 윤리학의 한 갈래임이 드러난다(1356a 20); “수사학은 문답술과 정치학의 한 갈래이다(1356a 27).”

이를 통해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문답술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을 새삼 확인할 수 있고 왜 페렐만이 그의 수사학의 기치로 문답술을 종지(宗旨)로 삼았는지를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전 작업은 우리가 아래에서 살펴볼 논리적 삼단논법에 대한 페렐만의 비판을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되리라.

(1) 논리적 삼단논법, 데카르트의 연역적 체계에 대한 페렐만의 반박

논리적 삼단논법에 대한 개념을 먼저 이해하기 위해 반 누든의 논문에서부터 우리의 논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자. 반 누든은 자신의 논문 「아리스토텔레스와 페렐만의 수사학적 논증」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분석론 전서 Prior Analytique』을 인용하면서 삼단논법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21) Ch. Perelman, *op. cit.*, 90쪽 참조.

22) Ch. Perelman & L. Olbrechts-Tyteca, *Trait de l'argumentation : la nouvelle rhétorique*, Ed. de l'Université de Bruxelles, 1988. 9쪽.

아리스토텔레스의 삼단논법에 대한 정의는 사실 연역적으로 타당한 논증의 정의에 해당된다. 즉 삼단논법은 답론인데, 그것은 위치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매우 두드러진 것을 위치시키는 어떤 것이 최초로 위치되어지는 것에서부터 필연적으로 야기된다.²³⁾

이러한 삼단논법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를 근거로 하면, 우리는 우리가 흔히 예로 드는 ‘만약 모든 a가 b이고(소전제), 모든 b가 c라면(대전제), 모든 a는 c가 된다(결론)’라는 ‘논리적 삼단논법’의 의미를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삼단논법에서 결론의 참은 필연적으로 앞에 존재하는 두 전제들의 참에 의해 보증된다. 이것은 플라톤의 철학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측면으로써 전제 두 개와 결론 한 개의 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²⁴⁾ 다시 말해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왜, 그 결론이 참입니까?”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는 “앞에 있는 두 전제가 참이고, 두 전제가 결론을 충분히 뒷받침하기 때문에 결론은 당연히 참입니다”라는 대답할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보통 연역법이라고 명명하는데, 사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을 연역법이라고 말한 적은 없다. 다만 후대의 학자들에 의해 ‘연역법’이라고 불리어지게 되었고, 결론이 참임을 증명하는 명확한 추론으로 형식화되었다. 이러한 연역법은 막강한 힘을 지닌다.²⁵⁾

예를 들어보자. <모든 사람은 죽는다(대전제),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소전제),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결론)>라는 대표적인 연역법적 추론을 분석해 보면, 결론이 갖는 참은 이미 앞의 전제들, 즉 대전제와 소전제 속에 내재되어 있다. 다시 말해, 결론은 전혀 새로운 내용을 알려주

23) S. Van Noorden, *op. cit.*, 179쪽. 이해를 돕기 위해서 원문을 소개한다.
“Aristotle's definition of the syllogism is in fact a definition of deductively valid argument : Syllogism is discourse in which certain things having been posited something else other than what has been posited necessarily results through what has been posited.”

24) Ch. Perelman, *op. cit.*, 85쪽. 여기서 페렐만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전제 두 개와 결론 한 개의 관계 맺음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것을 ‘전이성(transitivité)’라고 표현하고 있다.

25) *Ibid.*

지 못하고 단지 두 전제 속에 이미 함축되어 있는 것을 반복할 뿐이다. 그리하여 결론은 별 새로운 의미를 갖지 못하고 오직 전제들의 형식적인 단계로서만 기능하게 된다. 그리하여 연역법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²⁶⁾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형식적 추론으로 발전되었고, 이러한 형식적 추론을 바탕으로 형성된 논리적 과정이 독단적인 논증의 힘을 가지게 되어 데카르트에 이르면 수학적 방법으로 전환되기에 이른다. 이것을 우리는 ‘논리적 삼단논법’이라고 칭하고자 한다.

논리적 삼단논법은 연역적 체계를 지향하면서 증명성(démonstration)의 원리를 추구한다. 이러한 증명성의 원리는 데카르트에 의해 수학적 방법으로 강화되어 더욱 그 위력을 발휘한다. 데카르트는 “이성의 특징은 명확성이며, 명증만을 합리적인 것으로 여기기를 원한다. 증명은 명석하고 판명한 생각들에서부터 출발하여 공리, 즉 자명한 원리의 명백한 성질로 까지 끊임없이 넓히는 것이다.”²⁷⁾라고 언급하면서 증명성에 대한 가치를 넓히는데 선봉장 역할을 한다.

데카르트는 그의 자서전적 작품인 『성찰』을 통해 극단적인 반성과 아울러 그것 못지않게 역시 극단적인 결심을 하게 된다. 여기서 극단적인 반성이란 우선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전혀 확실하게 인식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인식한 것처럼 여겼던 것, 즉 거짓된 것을 판별해 내는 역할을 한다. 이를 바탕으로 데카르트는 극단적인 결심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정말 확실하게 인식되어 자신이 죽더라도 후대의 사람에게 의해 확실한 것인가 아닌가라는 논쟁이 벌어지지 않을 정도의 명증한 것으로 진리를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극단적인 반성에 의해 거짓되면서, 확실한 것처럼 여겼던 것을 제거하기 위해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주지의 회의적 방법(doute méthodique)이다. 이러한 회의적 방법의 첫 번째 제물이 감각이다. 그것을 시작으로 하여 그는

26) 참고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이란 후대 학자들이 그의 많은 저서들 중 다음 6권을 묶어 부여한 명칭이다: 『오르가눔』의 5권과 『토피카』.

27) 데카르트, 『방법서설, 성찰, 세계론』, 권오석 옮김, 홍신문화사, 1989 참조.

연장, 형태 그리고 양(量)등을 차례로 제물로 삼았고²⁸⁾, 그 결과 진리의 척도가 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것’ 세 가지를 제시하는데, 정신(l’âme), 신체(le corps), 그리고 사유(la pensée)가 바로 그것이다. 또한 이 세 가지를 다시 또 쪼개어 분석해 보니 그 중에 가장 단순하여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명석하고 판명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생각하는 나, 즉 코기토’이다.

데카르트가 이렇게 구한 ‘코기토’는 본유관념에 기초하고 있다. 코기토를 토대로 결국 데카르트의 연역적인 체계가 형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그런데 앞서 우리가 논한 논리적 삼단논법 체계의 변종에 다름 아니다. 데카르트는 물체라는 개념마저도 오로지 지성에 의해 파악된다고 하면서 그의 연역적 체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연역적 체계에서) 물체조차 본래는 감각 혹은 상상능력에 의해 파악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지성에 의해서만 파악되는 것이라는 점과, 또한 만지든가 보든가 하는 일에 의해 파악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이해함으로써 파악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 나에게 알려졌으므로 나는 나의 정신만큼 쉽게 증명성(démonstration)으로 인해 나에게 의해 파악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게 된다.²⁹⁾

그러나 이렇게 연역적 체계를 기반으로 하여 유지되는 논리적 삼단논법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단점을 포함하고 있다. 그 중 가장 심각한

28) *Ibid.*, 324쪽. 데카르트는 기하학의 영역 중에 ‘해석기하학’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구축한다. 이는 베크만의 자연과학적 사고방식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결과로 여겨진다. 즉 베크만에게 배운 원자론적 사고방식이 세계인식에 수학을 적용하는 일을 가능케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감각적으로 알려지는 세계를 초월하여 기하학적 성질을 갖는 원자의 객관적 세계를 생각함으로써 데카르트는 명증적으로 인정한 유일한 학문인 수학에 대한 새롭고 넓은 인식을 갖게 된다. 나아가 이런 수학적 세계관을 통해 데카르트는 감각적 사실이나 또는 실험을 통한 물질세계의 인식이 아니라 지성을 통한 직접적인 이해, 즉 이성을 통해 객관적 세계를 구성하게 된다.

29) *Ibid.*, 128쪽.

것이 바로 ‘양자택일(imcompatibilité)’, 즉 양립불가능성이다.

양자택일, 다시 말해 양립할 수 없는 것, 즉 어떤 하나를 택하면 반드시 나머지 하나는 자연스럽게 배제되는 이 양자택일의 원칙은 페렐만에 의해 철저히 비판의 대상이 된다. 페렐만에 따르면 양자택일의 원칙은 논리적 삼단논법이나 연역 체계에서와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형식을 따른다: 즉,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증명적 이성이기 때문에 그것은 선택될 수 있으며, 반대로 계산할 수 없는 것, 다시 말해 “비합리적인 힘, 본능, 그리고 폭력”과 같은 사실임직함(vraisemblance)의 가치는 거부되고 배제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페렐만은 명증적 혹은 증명적 이성은 선택되고, 사실임직함의 가치는 거부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양자택일 원칙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페렐만이 사실임직함의 가치 속에는 그 나름의 논리가 없는지를 고민하기 시작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³⁰⁾

이러한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페렐만이 선택한 것이 바로 ‘논증’ 개념에 대한 재해석이다. 페렐만에 따르면 논증에 대한 이론과 실천은 현실에 대한 판단이라는 사실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가치 판단이라는 관점에서 동시에 수행되어야 한다. 페렐만은 서로 길항 작용을 하는 이 두 장벽을 뛰어넘어야 했고, 이를 위해 그가 제시한 것이 소위 ‘십자가적 합리주의(crucial rationalism)’이다.

십자가적 합리주의를 우리말로 보충하여 설명하면 가로-세로 지르는 이성에 의한 탐구가 될 것이다. 페렐만이 이렇게 새로운 개념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던 연유는 어디에 있을까? 대답은 간단하다. 현실과 가치의 중재! 즉 페렐만은 현실에 치중해서, 다시 말해 통념에 의지해서 판단을 내리는 것도 미덥지 않고, 그렇다고 파르메니데스, 플라톤, 데카르트, 그리고 칸트와 같은 철학자들의 증명적 방법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도 미덥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적인 영역에서 사실판단과 가치판단이 상존할 수 있는 중립적인 곳을 자신의 거처로 마련한 것이다. 그가 볼 때는 바로 이 가로-세로 지르는 이성이야말로 자신의 새로운 수사학적 페

30) Ch. Perelman, *op. cit.*, 8~9쪽 참조.

러다임 구축을 위해 결정적인 것으로 비쳤던 것이다.

가로-세로 지르는 이성은 현실 세계 너머에 있는 것, 예를 들어 플라톤에게 있어서는 ‘이デア’, 또는 ‘진리’가 되겠고, 데카르트에게 있어서는 ‘자명성’, 또는 ‘코기토’가 되겠지만, 그것에서부터 사고의 기초를 찾지 않고, 지식과 의견이 생산되고 교환되는 현실 세계에서의 합리성을 출발점으로 한다. 그 때문에 가로-세로 지르는 이성은 명증적 합리성과 생활세계적 합리성 ‘사이’에서 활동하면서 양자택일적 선택보다는 양가적 고민에 친착하게 된다.

(2) 아리스토텔레스와 페렐만, 동상각몽(同床各夢)하고 있는 이유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용어는 ‘논거’라고 할 수 있다. 논거란 어떤 것이 옳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있어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을 말한다.³¹⁾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득에 있어 아무리 논거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명제’와 ‘사실’과 같은 차원에 놓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과학적 논거와 비교해 볼 때 문답술적 논거는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부연해서 설명하자면 과학적 논거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보편적 이성에 호소하는 것이라면, 다시 말해 ‘필연적 진리’를 지향하는 반면 문답술적 논거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의해, 대부분의 경우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일반적 진리’에 근거한다.

이러한 문답술적 논거는 다시 다음과 같이 두 종류의 논거로 구분된다. 첫째는 기술적 논거들이며, 둘째는 자연적 논거들이다.³²⁾ 기술적 논거는 내적 논거라고 하고, 자연적 논거는 외적 논거라고 하기도 한다. 전자는 오직 변론가의 추론 능력에 의존하여 그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하는 논거들이라면, 후자는 변론가의 권한 밖에, 다시 말해 대상(pragmata) 자체의 본성에 그 논거가 있다는 점에서, 그리하여 특별한 인

31) 박성창, *op. cit.*, 54쪽.

32)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 I』, 이종오 옮김, 리젠, 59쪽. 이 부분은 원본(1356a 35)에 보다 상세히 언급되어 있다.

간의 인위적인 노력이 첨가될 필요가 없는 논거를 가리킨다. 법정에서 재판관이 판결을 하고 난 후 제시한 그 판결문을 우리는 판례라 하는데, 바로 이 판례가 자연적 논거, 혹은 기술 외적 논거이다.³³⁾ 이러한 판례는 변론가가 임의적으로 발견하거나 창안해낼 수 없는 기술이다.

이렇게 개연성의 영역에서 추구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은 논리학에서 사용하는 추론인 연역법과 귀납법을 그대로 수사학에 적용하고, 나아가 이것을 통합적으로 사용하여 자신만의 수사학적 방법을 구축하게 된다. 그가 귀납적 방법을 근간으로 해서 어떻게 연역적 방법을 통합하는지 그 과정을 알아보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에서 사용한 방법은 예증법과 생략삼단논법이다. 전자가 귀납적 방법에 속한다면, 후자는 연역적 방법에 속한다. 예증법이란 유사한 것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에서부터 파생되며 일종의 유사에 의한 추론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유사한 훌륭한 실례들을 찾아내는 능력이 관건이다. 이러한 예증법은 건전성과 연계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예를 들어, 만약 “고소영이는 거미를 무서워한다. 그러므로 모든 여자들은 거미를 무서워한다.”라고 어떤 사람이 말을 했다면, 이것은 약한 설득력을 지닌 논증에 그치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습기가 차고 무더운 날씨로 인해 지친다. 그러므로 나는 습기 차고 무더운 날씨가 몸을 지치게 함을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많은 근거들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건전한 논증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경우에 있어 아리스토텔레스는 전자와 같은 논증을 ‘지표’라고 하며, 후자와 같은 논증을 바로 ‘개연성’이라고 부른다. 또한 동시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지표보다는 개연성이 더욱 건전한 논증이라고 암묵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왜냐하면 위에서 설명했듯이 지표보다는 더 많은 실례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33) 롤랑 바르트, 「옛날의 수사학」, 『수사학』, 김성택 옮김, 문학과 지성사, 1985, 68~69쪽. 바르트는 이 논문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기술 외적 증거들을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 즉 판례, 루머, 고문, 증빙서류, 서약 그리고 증언으로 분류하면서 그 구분에 따른 기능들을 설명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지략은 이렇게 명백하고 귀납적인 논증이 연역적으로, 즉 그 논증에 대한 참인 전제를 보편적이라고 간주하게끔 만들면서, 이것을 ‘타당성’과도 연계해서 주장했다는 점에 있다. 다시 말해 그는 건전성에 의한 결정적인 지표를 근거로 하는 논증, 즉 귀납법적 추론을 거쳐 탄생한 논증을 다시 타당한 삼단논법, 즉 연역적 추론 형식에 통합시킴으로써 ‘건전성’과 ‘타당성’을 동시에 건진다.³⁴⁾ 결국 아리스토텔레스는 건전성이라는 통과 의례를 거쳐 형성된 ‘결정적인 지표’를 확보하고, 이것을 논리적인 삼단논법의 형식 속으로 집어넣어서 추론한다면 타당성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을 간파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증법을 끌어 들일 수 있는 재료를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디서 찾았을까? 플라톤처럼 현실 세계 너머에서, 데카르트처럼 감각의 영역 건너에서 찾았을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주 예로 드는 것은 주지하듯 현실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소재들이 대부분이다. 결정적인 지표에 대한 구체적인 예인 “여자는 어떤 아이를 계속 낳는다. 왜냐하면 그녀는 우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³⁵⁾도 그렇고 또한 수사학적 삼단논법에 대한 추론의 예인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³⁶⁾라는 것도 역시 형이상학적인 범주에 속한다기보다는 인간의 생활 영역에서부터 도출된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귀납적으로 튼튼한 근거를 마련해 놓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충분히 ‘건전하다’는 이 사실로부터 필연적 진리를 내포하는 증명적 논증, 즉 논리적 삼단논법에 다가감으로써, 어쩌면 두 법칙을 하나로 통합하려 했던 것인지 모른다. 우리가 ‘생략삼단논법’이라 부르는 것이 이것이다. 그리고 생략삼단논법은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에서 문답술적 삼단논법³⁷⁾의 근간이 된다.

34) S. Van Noorden, *op. cit.*, 180쪽.

35) *Ibid*에서 재인용.

36) *Ibid*.

37) 사로도(Patrick Charaudeau)가 적극적으로 풀이한 ‘문답술적 삼단논법’(*Dictionnaire d'analyse du discours*, p. 173)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과 페렐만의 신수사학의 공통분모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두 철학자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당연 ‘삼단논법’이 아닌 ‘문답술(dialectique)’이다. 페렐만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분석추론(des

그렇다면 다시 묻자. 페렐만은 이 문답술적 삼단논법에 어떤 특징을 부여하는가? 페렐만에 따르자면, 기본적으로 수사학적 논증은 도덕적, 사회적 맥락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때문에 그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언급한 세 장르, 즉 토론적 장르, 제시적 장르 그리고 사법적 장르보다도 더욱 포괄적인 범위에서 논증을 다루기 위해 수사학적 추론과 논리적 추론을 구분한다. 물론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수사학에서 도덕적,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 세계에 대한 논의를 ‘정의’와 ‘행복’, 이 두 가지 측면에서만 한정시켰다. 그리고 다만 이 두 가지가 그가 언급한 도덕적, 사회적 맥락에 대한 논의의 전부라는데 페렐만은 이의를 제기한다. 페렐만이 수사학적 추론과 논리적 추론을 대별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논리적 추론은 수사학적 추론과 달리 현실 세계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다. 뿐만 아니라 논리적 추론은 진행 중인 논의, 논증에 대해 아무런 해법을 제공하지도 못한다. 페렐만이 중시한 수사학적 추론의 변별력이 여기에 있다.

페렐만은 이렇게 논리·형식적인 세계보다 현실 세계를 더 중시하고, 그 현실 세계에서의 논증을 수사학적 추론에 의뢰하며, 자신의 이러한 주장이 타당함을 헤라클레이토스가 언급한 ‘같은 강물(le même fleuve)’에 대한 해석³⁸⁾을 그 예로 제시한다. 페렐만의 지적처럼 우리의 현실은 논리·형식적인 시각에서 보면 양립 불가능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이렇게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 실은 그것들이 서로 반대된다는 사실로부터 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장에 대한 결과들, 또는 조건들과 양립할 수 없음에 의해서 발생한 것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³⁹⁾

이렇듯 형식논리학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모순의 세계가 현실의 세계에서는 항존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들에 대해 전통 철학에서는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페렐만의 신수사학이 해결해보려는 것이 바로 이것 이다.

raisonnements analytiques)’보다 ‘문답술적 추론(des raisonnements dialectiques)’을 논증의 측면에서 새롭게 의미 부여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38) 버트란드 러셀, 『서양의 지혜』, 이명숙 & 박강제 옮김, 서광사, 1990, 45쪽.

39) Ch. Perelman, *op. cit.*, 70쪽 참조.

3) 칼 포퍼의 반증이론과 페렐만의 보편청중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논거’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앞서 언급했다. 그렇다면 페렐만의 신수사학을 이해하기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한 마디로 말해 ‘보편청중’이라고 할 수 있다. 페렐만은 자신의 보편청중 논의를 위해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언급된 수용성(acceptabilité)의 문제를 재론에 부친다.⁴⁰⁾ 수용성의 문제는 문답술적 추론 과정, 즉 논증이 설득력을 갖출 수 있는 조건이다.

우리는 곧바로 문답술적 추론이 수용성의 문제, 즉 설득적이거나 강요적인 것을 제안하면서 인정하게끔 만드는 그 목적에서부터 시작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문답술적 추론은 다소 강하거나 혹은 다소 강요적인 논증을 이루지 않는다. 즉 결코 순수하게 형식적이지는 않다. 설득적 논증은 그것이 전달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 설득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하여 분석추론과 반대로 문답술적 추론은 (플라톤의 이데아처럼) 비인칭적 추론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추론은 정신 속에 갖든 그 행위에 의해 전달되기 때문이다.⁴¹⁾

페렐만은 자신의 신수사학적 논증을 위해 보편청중을 중시한다. 다시 말해, 페렐만이 목표로 하는 논증, 즉 문답술적 추론 과정에서는 그 담론이 목표로 삼는 청자가 누구든지 간에(quel que soit l'auditoire auquel il s'adresse) - 혹은 그 담론 상에서 논의되는 소재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quelle que soit la matière sur laquelle il porte) - 반드시 고려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청자를 세 가지로 분류(토론적 장르에 따른 청자, 제시적 장르에 따른 청자 그리고 사법적 장르에 따른 청자)해서 전달 내용이 각기 다를 수 있다고 말했던 것과 차이이다. 다시 말해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는 각각의 장르에 따라 공론이 달라지는데 반해 페렐만은 공적인 장소에 모인 군중이든 혹은 전문가 집단이든 또는 각 개인이나 인류 전체에게까지, 단적으로 말해 이 모든 종류의 청중에

40) Ch. Perelman & Lucie Olbrechts-Tyteca, *op. cit.*, 6쪽.

41) Ch. Perelman, *op. cit.*, 16~17쪽.

대해(toute espèce d'auditoire) 적용 가능해야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그가 목표로 삼는 진정한 의미의 '논증'이다.⁴²⁾ 페렐만의 이러한 의도가 과학자 집단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특히 칼 포퍼의 논증이론과는 어떤 연계성을 가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모든 과학은 심오해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경험의 차원을 뛰어넘기
는 해도 그 자체로 명증하거나 절대로 오류에 빠질 수 없는 것은 아
니며, 단지 인간적인 가설에 불과하다는 생각은 칼 포퍼가 훌륭하게
입증한 바 있는 현대적 인식이다. (...) 과학의 지위는 더 이상 비개
인적인 것이 아닌데, 그 이유는 모든 과학적 사유는 토론과 논쟁의
여지가 있는 오류에 빠질 수 있는 '인간적인 사유(une pensée
humaine)'이기 때문이다.⁴³⁾

인용문에서 우리는 페렐만이 자신의 주장을 포퍼와의 비교를 통해 유
사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주지하듯, 포퍼의 논증
은 한마디로 반증으로 대변된다. 포퍼는 과학의 발전 과정을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과학이란 누적된 검증에 의해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대담한 추측
에 의해 제기된 가설들이 반증되는 시행착오의 과정에서 과학이론은
발전해 간다.⁴⁴⁾

즉 포퍼의 이와 같은 주장 속에는 단순히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과학
의 일반적인 법칙이 도출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숨어 있다. 돌려 말해 소
박한 귀납주의적 방법은 모든 과학 영역에서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는
뜻이다. 포퍼가 이렇게 귀납주의적 방법을 비판하게 된 이유는 어떤 과
학적 가설이든 그것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그 가설을 위태롭게 하는 반대

42) *Ibid.*, 19쪽.

43) *Ibid.*, 174~175쪽.

44) 칼 포퍼, 『추측과 논박 : 과학적 지식의 성장』, 이한구 옮김, 2001, p. 110.

사례를 직면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가 과학적 탐구를 시행착오의 연속이라고 파악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인간 지식의 진보는 이러한 시행착오와 이의 끝없는 수정 과정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시행착오를 집중 분석하고 있는 책이 『추측과 논박』이다. 그렇다면 포퍼는 모든 인식의 출발점을 어디에 두고자 했던 것일까? 그 답은 바로 ‘문제’이다.

과학이 기본적으로 관찰에서 출발한다고 하는 과학의 귀납적 방법을 일종의 신화나 전설과 같은 것으로 비판하면서 포퍼는 과학의 출발점을 ‘문제’에서 찾는다. 즉 과학의 출발점을 관찰 또는 자료나 사실들의 수집과 분석에 두지 않고, 항상 문제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본다. 다시 말해 <주어진 자료 → 관찰 → 귀납적 일반화 → 하나의 이론 체계>의 단계로 형성되는 귀납주의와 그것을 기초로 도출된 과학적 객관성을 전적으로 신뢰할 것은 못 된다는 것이다. 그가 제안하는 과학적 방법은 우선 시행 단계에서 과감한 추측을 제기하고, 그것을 연역적인 테스트에 의해 논박 혹은 반증하려는 노력의 과정으로 요약된다.⁴⁵⁾ 그리하여 그는 유명무실한 ‘과학적 객관성’을 거부하고 부단히 객관성에 접근하려는 비판적 태도에 주의한다. 포퍼가 다양한 비판이 살아 움직일 수 있는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로운 토론과 대화를 허용하는 과학계, 사회·정치적 제도에도 관심을 갖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이런 사회가 그가 제시했던 소위 ‘열린사회’이다.⁴⁶⁾

포퍼에게 있어 객관성이란 결국 전문가 집단인 과학자 집단의 토론과 비판에 의해 형성된 과학자들의 ‘준-주관성(quasi subjectivity)’의 소산일 뿐이다. 결국 포퍼는 수학이나 논리학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다른 모든 경험적 지식이나 과학적 명제에 대해 그것이 경험에 의해 반증 가능한 것이면 과학에 속하고, 반증 불가능한 것이면 비과학적 명제에 속한다고

45) 그리하여 포퍼는 헤겔의 철학이나 공산주의의 사상 그리고 나아가 종교와 같이 반박이 불가능한 것은 철학적 사유 또는 철학적 이론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6) 칼 포퍼, 『열린사회와 그 적들』, 이한구 옮김, 민음사, 2006, 241쪽 참조.

주장하기에 이른다. 이와 같은 포퍼의 반증 이론에 착안하여 페렐만은 철학사 속에서 늘 과학과 궤를 같이 해온 철학적 사유도 고전적인 태도로부터 과감하게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에게 철학이란 결국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합리적이면서 수정 가능한 일종의 체계를 만들어 내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수사학적 논증’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다시 말해 처음부터 명증적 진리가 아니라 끝없는 비판과 반박을 거쳐 살아남은 철학을 페렐만은 수사학의 진리관으로 삼은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페렐만은 수사적 담론의 형성사를 일종의 ‘거대한 제국’에 비길만한 것 아니냐고 역설(力說)한다. 그리고 그 근간에 문답술적 추론이 언제나 작동되고 있다고 페렐만은 파악한다.⁴⁷⁾

페렐만이 포퍼의 반증이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된 배경에는 포퍼에게 있어서의 과학자 집단이 그의 신수사학에서의 보편청중과 유사성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각기 다른 집단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도출되는 합의의 경우도 결국 그 집단의 보편청중의 입장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⁴⁸⁾ 페렐만에 이르러 청중 개념은 이렇게 보편청중으로 확장된다. 다시 말해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에서는 청중이 ‘다수의 불특정한 청중’이었지만⁴⁹⁾ 페렐만에 이르러서는 소수의 전문화된 청중, 즉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담론을 생산하는 경우들까지 청중 개념에 포함시킨다. 단적으로 말해, 페렐만에게 있어서는 모든 설득적인 담론은 언제나 보편청중과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47) M. Maneli, *op. cit.*, 223쪽. 마넬리는 여기에서 페렐만이 강조하는 ‘대화(dialogue)’를 불완전한 정신작용에 대한 하나의 새로운 방법이라고 언급하면서 현재 우리가 직면한 위협, 즉 산업기술로 인한 새로운 무질서, 군사적 제국주의와 과도한 경제 생산 그리고 철학적으로 ‘일자(final uniformity)’를 지향하는 모든 형태의 전제주의 등을 타파할 수 있는 대안 중에 하나로 제안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대화’를 ‘문답술적 추론(des raisonnements dialectiques)’의 전형적인 예라고 생각한다.

48) 제임스 크로스화이트, 『이성의 수사학 - 글쓰기와 논증의 매력』, 오형엽 옮김,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1, 202~203쪽 참조.

49) *Ibid.*, 188~192쪽. 이것을 제임스 크로스화이트는 ‘비확정적 보편청중(undefined universal audience)’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다.

3. 맺음말 : 시대의 요청에 의해 부활한 (신)수사학

현대는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인해 풍요로운 물질생활이 구가되고 있는 소비지향 사회이다. 나아가 원본이 없고 복사본만이 돌아다니는, 그리하여 자기 소외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그러한 사회이기도 하다.⁵⁰⁾ 그러나 이런 소비지향 사회 속에서도 생활세계는 소수자의 행복과 다수의 불행으로 귀결되어 개인과 사회가 여전히 갈등을 겪고 있다.

특히 20세기에 이르러 공산주의 국가의 몰락과 사회주의 이념의 쇠퇴, 그로 인한 신생 민족국가들의 독립과 시행착오 그리고 최근 들어 슈퍼파워를 가진 미국의 독주와 그것을 무모하게 막아보려는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의 극단적인 저항들을 볼 때 현대의 세계상(image du monde)이 가치 인식과 행위선택의 준거를 상실한 것은 아닌가, 라는 의심을 하게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오직 전통의 절대가치만을 이상으로 삼아야 할까. 형식·논리적 합리주의를 두둔하면서 모든 현실적 문제들을 외면해도 되는 것일까. ‘나’의 가치를 기준으로 ‘남’의 존재를 부인하는 독선적 논거는 계속 분쟁만을 낳게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상황에 견주어볼 때 사실 신수사학의 부활은 결코 우연이라고 할 수 없다. 논증과 설득을 두 축으로 하는 페렐만의 신수사학은 시대가 요구하는 신학문이며, 그것의 부활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당성도 지니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첫째, 신수사학은 개인과 사회 체계의 다원주의적 공존의 이념을 지향한다. 이를 실행하는 일은 아직 요원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페렐만의 언급대로 각자가 자신의 인식을 전환하고 타자들과 끝없는 대화를 모색하며 문답술적 추론을 생활화한다면 언젠가는 그의 꿈이 이루어질 수는 있을 것이다. 더더욱 각자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서로의 경험과

50) 박치완, 「스펙타클의 지배와 인간의 (자기)소외」, 『철학 연구』 제33집,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2007 참조.

이성을 존중하며 최대 공약수로 합의를 도출해 낼 수만 있다면 공존의 가치와 공생의 가치는 얼마든지 획득 가능할 것이다.⁵¹⁾ 페럴만이 실제 각종 분쟁지역을 넘나들면서 그의 이론을 직접 실천해보인 것, 즉 대화와 협상의 테이블로 나섰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매우 교훈적으로 다가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둘째, 신수사학은 학문 간의 통합을 가능하게 해주는데 있어 지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⁵²⁾ 현재 학문의 세계에서 가장 큰 장벽은 후설이 일찍이 간파했듯이 학문 간의 분열이고 괴리이다. 쉽게 말해, 자연과학과 인문과학간의 단절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절름발이식 학문적 체계, 전문화라는 이름의 편협성을 당연시 받아들이고 있는 경향이다. 재차 강조하지만, 신수사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실천과 이론의 균형을 되찾을 때, 그동안 학문 간의 대화 단절은 어느 정도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본다.⁵³⁾ 더더욱 학문이 일부의 사람만을 위한 학문이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 아니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학문이라면 신수사학을 적극 수용하여 생각과 이념을 널리 공유하려는 노력을 배가시킬 필요가 있다.

신수사학은 이처럼 21세기라는 우리의 시대적 요청에 의해 새롭게 부활하고 있는 학문임이 분명하다. 공존·공생을 지향하고 이론과 실천의 통합을 기치로 하는 신수사학의 이념이 구체화될수록 멀지 않은 미래에 기능이나 효율만이 중시되는 작금의 시대 풍조에서 의사소통과 설득을 근간으로 하는 보다 자율적인 새로운 사회가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한국외국어대학교)

51) M. 마넬리, 『페럴만의 신수사학』, *op. cit.*, 265쪽.

52) 다치바나 다카시, 『21세기 知의 도전』, 태선주 옮김, 청어람미디어, 2004 참조.

53) G. B. Madison, "The New Philosophy of Rhetoric", *Texte*, n° 8-9, 1989. 269~277쪽 참조.

참고문헌

- 김현(편), 『수사학』, 문학과 지성사, 1985.
- 다치바나 다카시, 『21세기 知의 도전』, 태선주 옮김, 청어람미디어, 2004.
- 데카르트, 『방법서설, 성찰, 세계론』, 권오석 옮김, 홍신문화사, 1989.
- 미에치슬라브 마넬리, 『페털만의 신수사학』, 손장권/김상희 옮김,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6.
- 버트란드 러셀, 『서양의 지혜』, 이명숙&곽강제 옮김, 서광사, 1990.
- 박성창, 『수사학』, 문학과 지성사, 2005.
- 박치완, 「데카르트와 수사학」, 『해석학 연구』 제20집, 한국해석학회, 2007.
- _____, 「스펙타클의 지배와 인간의 (자기)소외」, 『철학연구』 제33집,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2007.
-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 I』, 이종오 옮김, 리젬, 2007.
- 앨런 그로스, 『과학의 수사학』, 오철우 옮김, 궁리, 2007.
- 장 보드리야르, 『소비의 사회 : 그 신화와 구조』, 이상률 옮김, 문예출판사, 2002.
- 제임스 크로스화이트, 『이성의 수사학』, 오형엽 옮김,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1.
- 존S 넬슨&앨란M 매질&도날드N 맥클로스키, 『인문과학의 수사학』, 박우수 &양태종 옮김,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3.
- 갈 포퍼, 『열린사회와 그 적들』, 이한구 옮김, 민음사, 2006.
- _____, 『추측과 논박 : 과학적 지식의 성장』, 이한구 옮김, 2001.
- 플라톤, 『플라톤의 국가 (政體)』, 박종현 옮김, 서광사, 1997.
- 필립 브르통&질 고티에, 『논증의 역사』, 장혜영 옮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
- 한석환,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의 철학적 기초」 『철학』 제74집, 대한철학회, 2003.

홍성욱, 『피놉티콘-정보사회 정보감옥』, 책세상, 2007.

Aristotle, *Rhetorique(Livre I, II, III)*, Les Belles Lettres, 1991.

Charaudeau(P.) & Maingueneau(D.)(éd), *Dictionnaire d'analyse du discours*, Seuil. 2002.

Madison(G. B.), “The New Philosophy of Rhetoric”, *Texte*, n° 8-9, 1989.

Maneli(M.), “The New Rhetoric and Dialectics”, *Revue internationale de Philosophie*, n° 127~128, 1979.

Meyer(M.), “The Revival of Questioning in the Twentieth Century”, *Synthèse*, vol. 74 n° 1 1988.

Perelman(Ch.), *L'empire rhétorique : rhétorique et argumentation*, J. Vrin, 1988.

Perelman(Ch.) & Olbrechts-Tyteca(L.), *Traité de l'argumentation : la nouvelle rhétorique*, Éditions de l'Université de Bruxelles, 1988.

Robinet(A.), “Nouvelle rhétorique et informatique : le pouvoir dialectique”, *Revue internationale de Philosophie*, n° 127~128, 1979.

Ross(D.), *Plato's Theory of Ideas*, Oxford, 1953.

Van Noorden(S.), “Rhetorical Arguments in Aristotle and Perelman”, *Revue internationale de Philosophie*, n° 127~128, 1979.

Universal Audience and Argument in the New Rhetoric

Yang, Hyun Jung/ Park, Tchi-Wan

Ch. Perelman revives the Rhetoric, so called the *New Rhetoric*. He reinterprets the dialectical reasons which was devaluated by scholars. In other words, on studying about Aristotle's *Rhetorica*, the scholars have limited Aristotle's rhetoric on the *analytic reasons* such as the formal reasons, but Perelman converted this direction of analytic reasons for the *dialectical reasons* which depend on the *Universal Audience*.

The aim of dialectical reasons is to persuade of the Universal Audience. On the course of reinterpreting the Aristotle's *Rhetorica*, Perelman make the new sense and category under Universal Audience, and consequently he come to extend his discourse of rhetoric to the scientific knowledge. In addition, Perelman lead to achieve the argument from the actual reality in which we live. That is the reason why he tries to examine his rhetorical idea for domains, such as the law, the literature, the philosophy, and the politics.

After all, we lead to make a conclusion the two consequences: firstly, the New Rhetoric aim to the philosophy which harmonizes the theory and the practice, an individual and the society; secondly, the New Rhetoric brings up the possibility of dialogue between sciences. Therefore, the New Rhetoric will be comprehended as a guide map for the new direction of the philosophy and the society.

Key Words: New Rhetoric, Universal Audience, Argument, Logical Syllogism, Dialectic Reasoning

양현정 e-mail : Myanghj@naver.com

박치완 e-mail : chwpark001@hanmail.net